

수석보좌관회의

다음에는 저쪽에 앉아야겠습니다. 이쪽이 안보이니 말입니다. 미국, 북한, 중국 3개국 회담이 시작되는 게 국내외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.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사람 섭섭해 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. 각별히 관계된 수석과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. 이런저런 해명하지 말아주십시오.

애당초는 북미 양자였습니다. 미국 쪽 주장에 의해 한국 포함한 주변국이 들어가는 다자구도 수용된 것입니다. 새삼스럽게 우리가 끼어들겠다고 하면 처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. 또한 회담의 성격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. 겨우 차려놓은 것의 판을 깰 수도 있으므로, 모양새를 생각해야 한다든지, 참석해 체면을 생각해야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결과가 좋아야합니다.